

주부의 가정자원 재활용 의식과 행동

Recycling Behavior and Consciousness on Household Waste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韓廣美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Kyeongmi Han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관련연구 고찰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recycling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Specifically, it aims 1) to investigate the level of recycling attitudes and behaviors, 2) to find out variables related to recycling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 from 248 wives in Kwangju city.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orting behavior of waste was higher than median, but active recycling behavior was lower than median. The recycling behavior was facilitated by wives' high age, lower education level, apartment dwelling, and part-time job. In addition, to motivate the recycling behaviors, various implications discussed.

I. 서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에 쓰레기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원을 과다하게 소비하고 폐기하는 것은 지구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가속화한다. 쓰레기의 배출량이 자연의 용량과 정화능력에 수용가능한 정

도가 되어야 환경이 보존되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발생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아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자원빈국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높임으로써 쓰레기발생을 최소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가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쓰레기를 자원으로 간주하여 자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적 생산과 소비구조로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고 머지않아 인류가 쓰레기더미에 묻히게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유럽대륙에서는 '2005년 폐기물 배출량 제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환경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독일을 진원지로 한 폐기물 배출량 제로화 열풍은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등 유럽연합(EU) 각국으로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문화일보 '97.9.9).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 제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정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일반 소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 1인이 하루에 200g씩만 재활용에 참여한다면 1년에 300만톤이 자원으로 쓰여지며, 돈으로는 2천5백억원이 절약되고 쓰레기처리비는 4백억원이 절약된다. 폐지와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고철의 4대 쓰레기를 1% 재활용하면 63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자원재생공사, 1997). 폐지회수율은 1%만 높이면 연간 40억원의 외화를 절약하고 30년생 나무 80만 그루를 보존할 수 있다(환경공업신문, 1997.1.1). 1997년 생활쓰레기중에 64%는 매립하고, 7%는 소각, 재활용은 29%를 하고 있어(환경부, 1998), 재활용율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선진국수준에 많이 못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좀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의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쓰레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배출하는 곳은 가정이고, 가정살림이 환경의 가장 큰 오염원(60-70%)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생활쓰레기 문제에서는 가정을 기본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부의 가정자원 재활용의식과 행동의 실태는 어떠하며,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가정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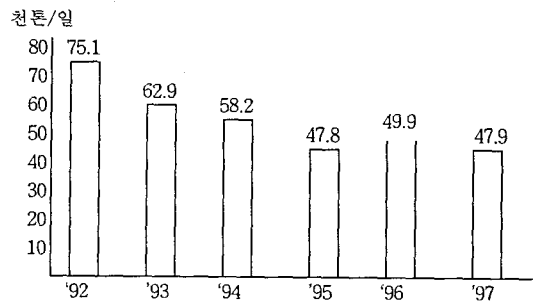
II. 관련연구 고찰

1. 쓰레기 현황과 재활용

재활용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회수하거나 선별하여 재이용하거나 제품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은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양을 줄임으로써 쓰레기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폐자원의 이용으로 천연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아니라 매립과 소각시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1993년에는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정책을 수립하였으며, 1994년에는 시범지역을 정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관리의 일대혁명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종량제를 실시한 1995년에 생활쓰레기는 전년도에 비해 10.4%가 감소했으나, 바로 이듬해인 '96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종량제의 의식이 다소 둔감해진 결과로 추측된다.



<그림 1> 생활쓰레기 발생량 추이

그러나 '97년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쓰레기발생량이 약 30% 줄었고, 재활용품은 28.5%가 증가하여 25만평에 해

당하는 매립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97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쓰레기와 그중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한 실태는 <그림 2>와 같다.

생활쓰레기	매립 63.9%	재활용 29.0%	소각 7.1
전체쓰레기	매립 38.2%	재활용 55.3%	소각 5.8

<그림 2> 쓰레기 처리실태

생활쓰레기는 매립율이 크게 높고, 재활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연도별로 처리실태 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쓰레기처리 실태 추이

처리유형	'92	'93	'94	'95	'96	'97
매립	89.2	86.2	81.1	72.3	68.3	63.9
소각	1.5	2.4	3.5	4.0	5.5	7.1
재활용	7.9	11.4	15.4	23.7	26.2	29.0
기타	1.4	-	-	-	-	-

자료: 환경부(1998). 폐기물처리 실태

'92년도에는 쓰레기의 거의 90%가 땅에 매립되었는데 '97년에는 64%로 많이 감소하였고, 재활용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산지가 많고 국토도 비좁은 우리나라는 광활한 땅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매립율이 높은 수준이다. 매립처리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발생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무엇보다도 매립할 수 있는 토지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는 매립지난을 해소하고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소각처리하는 쓰레기의 비율을 점차 높일 것이라고 하는데, 소각처리하는 방법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다이옥신이나 납과 같은 유해물질이 대기중에 방출되며, 독성이 있는 잔재가 남는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쓰레기 처리대안은 재활용을 늘려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다. 분리수거는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품목별로 분리하여 수거된 쓰레기를 생산 공정으로 다시 되돌리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재활용 단계는 버려져 없어질 자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재활용단계가 있고, 재활용상품을 생산하는 단계가 있다.

<표 2> 자원재활용 실적과 계획

구분	'97(실적)	2000년	2002년
생활쓰레기	29.0%	35.0%	40.0%
사업장쓰레기	64.3%	68.0%	70.0%

자료: 환경부(1998), 제2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안)

우리나라 쓰레기의 재활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2>는 자원재활용 실적과 계획을 보여주는데 '97년도에는 생활쓰레기의 29%, 사업장쓰레기의 64.3%를 재활용하였다. 환경부의 제2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안(1998)을 보면 2002년에는 생활쓰레기의 40%, 사업장쓰레기의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품목별 재활용

<표 3>은 환경부의 품목별 재활용 목표를 보여준다. 품목별로 재활용실태를 보면 페유리와 폐캔의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2002년까지는 모두 60%

<표 3> 품목별 재활용 목표

구분	'97(실적)	2000년	2002년
폐지	56.8	57.0	60.0
폐캔	48.9	50.0	60.0
페유리	35.4	50.0	60.0
페타이어	59.8	77.0	85.0
페윤활유	82.3	87.0	90.0

자료: 환경부(1998), 제2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안)

이상으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품목별로 재활용추이를 보면 우선 종이의 재활용 추이는 <표 4>와 같다. 폐지의 재활용율은 계속 증가하여 '97년 현재 56.8%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고철의 재활용 추이는 <표 5>와 같다. 철재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재활용율은 다른 품목과 상이하게 답보상태에 있다. 쓰레기종량제와 분리수거를 시행한 이후에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고철의 회수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 6>은 폐유리의 재활용 추이를 보여주는데 폐유리의 재활용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폐유리에는

유리병과 유리조각이 포함되는데, 폐유리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유리조각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유리병에는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과 같은 재사용되는 병과 1회용 병이 있는데, 재사용횟수는 7-14회로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이다. 재사용병은 95%이상 재활용(한국자원재생공사, 1998)되고 있으나 1회용 병의 재활용율은 낮은 수준이다.

<표 7>을 보면 플라스틱의 발생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은 아주 낮다. 우리나라 쓰레기중 폐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인데(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플라스틱은 매립할 때 썩지 않고, 소각할 때 유독가스나 소각 후 중금속 잔유물이 남는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하기

<표 4> 종이의 재활용 추이

(천톤/년)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종이소비량(A)	4,867	5,281	5,836	6,549	6,887	7,216	7,962
국내폐지원료사용량(B)	2,095	2,325	3,701	3,305	3,662	3,994	4,530
국내폐지재활용율(B/A,%)	43.0%	44.0%	46.3%	50.5%	53.2%	54.7%	56.8%

환경백서(1998).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제공

<표 5> 고철의 재활용

(천톤/년)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철재소비량(A)	24,454	21,818	25,246	30,510	37,306	39,387	39,900
국내고철원료사용량(B)	7,879	8,817	9,764	11,345	12,879	13,827	15,543
국내고철재활용율(B/A,%)	32.2%	40.4%	38.7%	37.2%	34.5%	35.1%	38.9%

환경백서(1998). 한국철강협회 제공

<표 6> 폐유리의 재활용

(천톤/년)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유리병소비량(A)	816	733	701	921	788	813	805
폐유리원료사용량(B)	368	314	304	422	446	490	546
폐유리재활용율(B/A,%)	45.1%	42.8%	43.4%	45.8%	56.6%	60.3%	67.8%

환경백서(1998).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제공

〈표 7〉페플라스틱의 재활용

구 분	(천톤/년)					
	'91	'92	'93	'94	'95	'96
페플라스틱발생량(A)	1,706	1,943	2,392	2,769	2,827	3,020
페플라스틱원료사용량(B)	164	173	207	374	444	444
플라스틱재활용율(B/A,%)	9.6%	8.9%	8.6%	13.5%	15.7%	15.7%

환경백서(1997),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 제공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는 종이류와 유리병류, 비철금속류, 플라스틱류, 전자제품류, 자동차, 타이 어, 윤활유 등이 주요품목이라 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시한 재활용이 가능한 5대 품목은 종이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이다.

이외에도 헌 의류의 경우는 선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수거된 의류중 면섬유는 공업용절레로 활용되고, 그 외 섬유는 농업용 보온덮개나 방음, 방수 필프 등으로 재활용된다. 폐가구나 폐가전제품은 수리만 하면 중고품으로 재이용하는 것이 70%나 된다(한국자원재생공사, 1997).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가전제품 제조업체,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서 수거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는데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퇴비화를 통하여 농업자재로 이용가능한 대부분의 유기성폐기물이 매립이나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제2차 오염원을 배출하는 것이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장에서는 타지않고, 매립지에서는 침출수 등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소각처리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퇴비화가 가장 유리한 처리방법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3. 재활용행동과 관련요인

주부의 자원재활용 행동과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여기서는 친환경적 행동이나 녹색소비행동 등을 중심으로 관련변수를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부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친환경적인 행동이나 환경관리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인숙 외 1998; 박운아, 1997; 노영화와 강성진, 1992; 안향아, 1994). 한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서정희, 1991; 노남숙, 1993)도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주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환경적인 행동을 더 많이한다는 결과(엄하정, 1993; 곽인숙 외, 1998; Schahn과 Holzen 1990; 서정희, 1991; 홍기남, 1992)가 있고, 교육수준은 친환경적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박운아, 199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행동을 더 적게 한다는 결과(계선자와 강기정, 1998)도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자원재활용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수로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거주자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결과(이승신의, 1993; 이정우와 이명숙 1989)가 있는가 하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박운아, 1997)가 있어 변수로써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장혜연(1997)은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하였는데, 직업지위별로는 노무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가장 친환경적행동을 많이 하고, 전문·관리·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는 자기이익·보전성 가치요인이 더 높았는데, 이 가치는 친환경적 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운아(1997)는 취업주부가 친환경적인 행동을 더 적게 한다고 하였

고, 그 외 몇 연구에서도 전업주부가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하였다(이정우 외, 1989; 홍기남, 1992). 그리고 취업여부와 환경친화적인 행동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최남숙, 1994)도 있다. 따라서 취업여부나 직업지위에 따른 차이보다 자원재활용 행동에서는 시간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일취업, 부업, 전업주부로 나누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다. 조사는 1998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300부가 배포되어 260부가 회수되었고, 분석에는 248부가 사용되었다.

분석에 적용된 통계방법은 빈도분포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GLM의 다중분산분석 등이다.

조사대상자 주부의 연령은 40대가 3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0대(30.2%)이며, 20대(16.9%)와 50대이상(13.3%)은 비슷한 수준이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졸이상(36.9%), 중졸이하(17.2%) 순이다. 가계 월평균소득은 151~200만원인 경우가 3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1~150만원(29.3%), 100만원이하(20.9%), 201만원 이상(19.6%) 순이고, 소득의 평균치는 178만 5천원이다. 가족수는 4명이 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명(22.2%), 5명(19.8%), 6명, 2명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가족수는 4.01명이다.

주거형태는 아파트주거가 53.2%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40.7%), 연립주택(6.0%) 순이다. 주부의 취업상태를 보면 비취업주부가 53.1%로 가장 많고, 취업(31.4%), 부업(15.5%) 순으로 나타났다.

Ⅵ. 결과 및 해석

1. 자원재활용과 관련한 의식

〈표 8〉는 쓰레기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답한 결과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일회용품의 증가(33%)를 들었고, 그 다음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의 회수나 재생이 잘되지 않기 때문(25.8%)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증가(18.1%), 상품의 과잉포장(15.8%), 인쇄물과 종이사용 증가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은 정기적으로 수거해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9〉 대부분 정기적으로 수거해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도 10%이다.

〈표 8〉 쓰레기 증가원인

증가원인	빈도 (백분율)
일회용품 증가	160 (33.0)
상품 과잉포장	74 (15.3)
인쇄물·종이사용증가	38 (7.8)
재활용 저조	125 (25.8)
음식쓰레기 증가	88 (18.1)

〈표 9〉 분리수거 재활용품 정기수거

	빈도 (백분율)
정기적 수거해가고 있음	204 (84.3)
정기적 수거해가지 않음	14 (5.8)
잘 모름	24 (9.9)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답하게 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에 대한 조기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17.9%로

〈표 10〉 자원재활용 촉진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복수응답)

	빈도 (%)
조기교육 실시	132 (17.9)
분리수거함 많이 설치	64 (8.7)
일회용품 생산·판매규제	98 (13.3)
비닐봉지·스티로폴 사용규제	47 (6.4)
재생용품 사용권장	79 (10.7)
분리수거품 적시 수거	82 (11.2)
재활용업체 재정지원	44 (6.0)
재생제품 개발	95 (12.9)
물물교환시장 개최	43 (5.8)
행정기구와 재활용단체 유기적 연결	52 (7.1)

〈표 11〉 재활용필요 이유

	빈도 (%)
환경보호	135 (54.7)
자원절약	94 (38.1)
쓰레기감량	18 (7.3)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일회용품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가 13.3%이다. 그리고 재생가능한 제품을 보다 많이 개발(12.9%),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적시에 잘 회수해가는 것(11.2%), 폐지나 페플라스틱으로 다시 만들 재생용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를 보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많은 것은 54.7%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은 자원이 절약되기 때문(38.1%),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이기 때문 순으로 답하였다.

재활용쓰레기를 재생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재생제품의 가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표 12〉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저렴하다가 49.4%로 가장 많고,

〈표 12〉재생제품 가격

	빈도 (%)
생각보다 훨씬 저렴	26 (10.5)
약간 저렴	122 (49.4)
약간 높음	72 (29.1)
훨씬 높음	5 (2.0)
잘 모름	22 (8.9)

〈표 13〉신제품과 비교할 때 적절한 재생제품 가격

	빈도 (%)
50% 이상 저렴	91 (37.3)
50 - 60% 수준	87 (35.7)
70 - 80% 수준	54 (22.1)
90%이상·동일	12 (4.9)

약간 높다(29.1%), 훨씬 저렴하다 순이다.

그러면 재생제품의 가격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표 13〉를 보면, 50%수준으로 저렴해야 한다가 3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0-60% 수준(35.7%), 70-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을 보면 천연원료가 아닌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주부는 67.5%이고, 구입해 본 경험조차 없는 주부도 32.6%나 되었다.

재생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본 주부에게 그 품질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15〉, 천연원료로 만든 천연제품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답한 사람이 65.8%이고, 비슷하다고 답한 주부는 30.5%로 나타났다.

재생제품을 구입해본 적이 없는 주부에게 그 이유

〈표 14〉 재생제품 구입경험

	빈도 (%)
구입경험 유	165 (67.4)
구입경험 무	80 (32.6)

〈표 15〉 재생제품 품질

	빈도 (%)
천연제품보다 훨씬 떨어짐	21 (12.8)
약간 떨어짐	87 (53.0)
비슷함	50 (30.5)
더 우수함	6 (3.7)

〈표 16〉 재생제품 구매하지 않은 이유

	빈도 (%)
사고싶었지만 어떤것인지 잘몰랐다	27 (33.8)
사고싶었지만 판매장소를 잘 몰랐다	32 (40.0)
가격차가 별로 없었다	8 (10.0)
품질이 떨어졌다	13 (16.2)

〈표 17〉 재활용 정부시책에 참여의사

	빈도 (%)
지금보다 적극참여	164 (66.7)
현재하는만큼 참여	81 (32.9)
참여의사 별로없다	1 (0.4)

를 답하게 한 결과〈표 16〉, 사고싶었지만 판매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제품이 재생제품인지를 몰라서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74%나 되었다. 그 외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차가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재생제

품을 적극 사용하자는 정부시책에 조사대상자가 앞으로 참여할 의사는 어느 정도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17〉 현재보다 더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고, 현재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32.9%이다.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대해 주부의 편의적인 의식은 어떠한지를 조사한 결과〈표 18〉 분리수거 체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94.7%). 그리고 번거스러운 일은 하기 어렵다는 문항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9%,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재활용과 관련하여 주부들의 경제적인 의식은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표 19〉 환경보호상품도 가격이 저렴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가장 높아 75% 대상자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번거스러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적극한다는 질문에는 60%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3문항 모두 중간점을 상회하는 평균값을 가져 재활용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분리수거 및 재활용 행동

주부들이 재활용쓰레기를 어느 정도 분리수거하고 있는지를 종류별로 보면 〈표 20〉과 같다. 모든 품목의 평균은 중간점인 2.5점을 상회한다. 그 중에서도 유리병의 분리수거가 3.62점으로 가장 잘되고 있고, 그 다음은 종이와 우유팩(3.42), 철과 알루미늄캔(3.40), 플라스틱(3.25) 순이고, 옷이 가장 분리수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편의성

(단위: %)

	평균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분리수거를 잘하게하려면 특히 수거 체계가 편리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4.53	61.6	33.1	2.4	2.4	0.4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간이 들고 번거스러운 일은 하기 어렵다	3.22	7.3	41.7	24.7	17.8	8.5

〈표 19〉 경제성

(단위: %)

	평균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재활용을 잘하도록 금전적보상을 주는 것이 우선이다.	3.02	9.8	30.9	22.4	25.6	11.4
번거스러워도 경제적으로 절약이 된다면 적극하는 편이다	3.85	28.9	39.0	22.4	8.1	1.6
환경보호 상품도 가격이 저렴해야 이용할 수 있다.	3.90	23.1	51.8	17.8	6.5	0.8

〈표 20〉 분리수거 행동

(전체평균: 3.36)

	평 균	항상 분리	대체로 분리	대체로 버림	거의 버림
종이·우유팩	3.42	56.5	32.7	7.7	3.2
철·알루미늄캔	3.40	53.9	32.7	12.7	0.8
유리병	3.62	68.2	26.5	4.5	0.8
플라스틱	3.25	48.2	31.4	17.6	2.9
옷	3.11	46.1	26.9	19.2	7.8

〈표 21〉 재활용행동

(전체평균 : 2.33)

	평균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폐식용유는 모았다가 비누를 만들거나 만들 사람에게 갖다준다	1.90	13.2	12.0	26.9	47.9
가전제품·가구처분시 정보지나 알뜰시장(바자회)에 내놓는다	2.03	10.0	17.6	38.1	34.3
작거나 입지않는 옷은 수선하여 고쳐입는다	2.26	13.2	29.2	28.0	29.6
작은 신발은 이웃·친지에게 준다	2.57	18.6	40.5	20.7	20.3
사용하지않은 물건은 재활용센터를 이용해 다른 물건과 교환한다	1.75	5.4	9.2	40.2	45.2
유리병은 판매점에 가져가 돈이나 물건으로 교환한다	2.74	29.8	34.3	16.5	19.4
우유팩은 모아서 화장지와 바꾼다	2.10	12.9	20.3	30.7	36.1
샴푸·화장품은 내용물만 바꾸고 용기는 다시 사용한다	3.25	47.1	37.7	8.6	6.6

〈표 21〉에서는 주부들이 재활용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중간점 이하수준이다. 샴푸나 화장품은 리필제품을 이용한다가 3.25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리병을 돈이나 물품으로 교환하는 것(2.74), 작아 못신는 신발은 이웃이나 친지에 준다(2.57)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옷(2.26), 우유팩(2.10), 가전제품과 가구(2.03), 폐식용유(1.90), 불용품을 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교환하여 쓰는 행동(1.75)은 중간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행동과 구체적인 자원재활용 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6개의 독립변수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과 가족수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변수를 한 모델에 포함하여 GLM의

다중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2〉에 제시되었다.

독립변수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분리수거 행동에는 주부의 연령과 주거형태만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이 50대 이상인 주부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가장 잘 실천하였고, 그 다음은 30대 주부, 40대주부 순이며, 20대 주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가 가장 분리수거를 잘하였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그보다 낮은 비슷한 수준이다. 아파트는 주택보다 분리수거합이 잘 비치되어 있고, 회수체계가 대규모로 잘 이루어지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변수는 분리수거 행동의 분산을 17% 설명하였다

재활용행동에서는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주부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만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각 품목별로 재

〈표 2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분리수거와 재활용행동의 GLM 다중분산분석

독립변수	집 단	N	분리수거	재활용
연령	20-29세	42	3.195 a	2.212 a
	30-39세	73	3.479 bc	2.391 ab
	40-49세	94	3.294 ab	2.543 b
	50대이상	32	3.537 c	2.530 b
	F값		5.40***	0.56
교육 수준	중졸이하	43	3.377	2.725 c
	고졸	107	3.346	2.479 b
	대졸이상	91	3.382	2.255 a
	F값		0.80	4.38*
주거 형태	아파트	127	3.543 b	2.343 a
	단독주택	99	3.168 a	2.530 a
	연립주택	15	3.160 a	2.615 b
	F값		16.39***	2.05
취업 상태	비취업	129	3.377 a	2.377 a
	취업	75	3.357 a	2.398 a
	부업	37	3.341 a	2.724 b
	F값		0.16	3.60*
R ²			.17	.13

활용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부업을 하고 있는 주부가 재활용행동을 가장 잘하고, 비취업과 취업주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주부의 재활용행동의 분산을 13% 설명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1) 광중광역시 주부는 쓰레기가 증가하는 주원인으로 일회용품이 증가하고 재활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제시된 문항이 고루 필요하다고 답하였는데, 조기교육, 일회용품 생산과 판매규제, 재생제품개발과 사용권장, 분리수거품 적시수거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주부들이 재생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생제품 가격은 현재보다 더 낮아져야 하고, 제품의 질은 현재보다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과 권미혁(1997:205)은 천연원료가 싼 것은 천연자원의 개발에 정부의 보조와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정책이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원자재의 반복사용을 방해할 쓰레기를 양산시키므로 재활용사업에 지원과 혜택을 늘리고 천연자원의 개발에 환경파괴비용을 부담시킨다면 경제성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새롭게 하여 천연재료의 상품만을 선호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재활용시책에는 앞으로 더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분리수거행동을 계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체계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되고, 재활용행동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보상제도가 더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응답자 주부의 분리수거 행동에서는 모두 중간점을 상회하는데, 유리병 분리수거를 가장 잘하고 있고, 의류는 가장 안되고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폐지는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치므로 처음 수집하는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

단계를 단순화하고, 복잡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종이의 배출요령대로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철 역시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고 아파트나 주택단지 곳곳에 압축기와 같은 장비를 확대보급하여 회수를 용이하게 하며, 수거자판기 같은 것을 설치하여 캔 한 개를 넣을 때 압축이 되면서 동전이 나오는 등의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 유리병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병의 색깔별로 수거를 하거나 병마개와 같은 이물질은 제거한 뒤에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이 낮은 것은 각 가정에서 플라스틱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의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플라스틱 자체의 물리화학적 성질 때문이다. 대개의 플라스틱은 재질이 서로 다른 것이 섞여 제품을 이룬 것이 많은데, 기술상으로 이 재료들을 선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쓰레기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므로 재활용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개별 가정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식기나 세면도구, 세제, 샴푸, 화장품용기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리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과정에서는 과다포장을 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가지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에는 플라스틱의 재료를 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용행동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용기를 리필제품을 사용하는 행동이 가장 많았다. 유리병과 신발류는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중간점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가정에서는 개별 품목을 재활용하는 행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전운숙과 이희숙(1998)에 의하면 리필제품의 이용수준은 리필제품에 대한 정보수준만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으로는 리필제품에 대한 홍보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Stuart Oskamp(1991) 등은 공동체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의 재활용행동을 분석하였는데 재활용방법이나 그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재활용센터의 비편의성은 재활용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재활용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웃이나

친지의 재활용행동을 보는 것은 재활용행동을 증진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고, 재활용센터가 지역사회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원재활용을 하는 모델링의 대상이 근접해있는 경우 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는데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해당품목을 분리수거하는 날은 각 가정 앞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이 이웃간에 볼 수 있는 투명한 통으로 하여 내놓는 것이 서로에게 자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기에 국한된 캠페인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보제공을 하되 일반적인 환경정보보다는 구체적으로 재활용의 필요성 등에 관한 자각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이 요청된다.

5) 분리수거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연령과 주거형태로 50대 이상인 주부가 분리수거를 가장 잘하였고, 20대 주부가 가장 낮았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주부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보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신세대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가 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분리수거한 물품이 복잡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재활용 품목별 쓰레기 배출요령에 맞추어 최대한으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때 재활용행동은 주부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재활용행동을 잘하였고, 비취업주부나 취업주부보다는 부업을 하는 주부가 재활용을 더 많이 실행하였다. 취업주부 경우는 시간의 제약때문에 재활용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지역사회내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한 주부와 비취업 주부간에는 큰 차가 없으나 비취업주부가 부업주부보다 재활용행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혜연(1997)이 밝혔듯이 비취업주부가 친환경적

행동과 부적관계를 가지는 자기이익,보전성 가치요인이 높았다는 결과와 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시간여력이 있는 비취업주부가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고, 비취업주부의 재활용행동을 조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가 지역사회를 선도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행동이 더 낮은 것은 지식만 있고, 행동이 없는 생활태도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게 생활의 안락함과 편의를 추구하는 행동은 지양하고, 이웃과 후손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가치정립이 보다 요구된다. 그리고 환경교육이나 재활용교육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에도 체계적으로 계속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계선자·강기정(1998).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에 따른 녹색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03-117
- 곽인숙·송요숙·김태년·김경애(1998). 환경의식과 가정쓰레기 처리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18
- 김은경·권미혁(1997).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 한국여성사회교육원, 한울
- 김재범·지재성·문국현 공역(1997). 녹색공동체를 위한 실천, 유한김벌리. UNEP 한국위원회 환경총서 1, 나남출판,
- 노남숙(1993).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영화·강성진(1992).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생활 개선방안 연구, 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2-12, 한국소비자보호원
- 매일신문, 1998년 8월 5일자 -인터넷 검색자료
- 문화일보, 1997년 9월 9일자, <기동취재>선진국 '쓰레기0'정책 -인터넷 검색자료
- 박운아(1997). 기혼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희(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관련변

- 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93-101
- 안향아(1994). 주부의 환경문제 인식정도가 환경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하정(1993).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 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신 · 이혜임 · 류미현(1993).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능력, *한국소비자학회, 환경문제와 소비자*, 2-37
- 이정우. 이명숙(1989). 도시주부의 생활환경 오염인지와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 12, 123-151
- 장기복(1995). 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장혜연(1997). 주부의 가치와 친환경적 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윤숙 · 이희숙(1998). 환경보호 측면에서 본 리필제품의 소비자이용 및 소비자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3), 15-29
- 조은숙(1994). 환경영향을 고려한 도시고형폐기물 소각과 재활용정책의 타당성 비교검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성 외(1994). 주요국가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재생공사*
- 최남숙(1994).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경미(1999). 생활쓰레기현황과 자원화방안, *가정과학연구(전남대)*, 8, 49-60
- 한국공업신문, 1997년 1월 1일자 -인터넷 검색자료
- 한국자원재생공사(1997). *재활용 가이드북*
- 한국자원재생공사(1994).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생 제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한국자원재생공사(1997). *쓰레기분리수거*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환경마크협회(1998). 환경을 살리는 소비생활*
- 홍기남(1992).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소비자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환경부(1998). *폐기물발생량 - 인터넷 검색자료*
- 환경부(1998). *소비단계에서의 최소화 - 인터넷검색자료*
- 환경부(1998). *재활용통계 - 인터넷 검색자료*
- 환경부(1998). *폐기물처리 실태 - 인터넷 검색자료*
- 환경부(1997, 1998). *환경백서*
- Schahn, J., E. Holzer(1990). *Studie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Concern : The Role of Knowledge, Gender and Background Variables, Environment and Behavior*, 22(6), 767-786
- Stuart Oskamp, Maura J.Harrington, Todd C. Edwards, Deborah L. Sherwood, Shawn M. Okuda, Deborah C. Swanson(1991).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Recycling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3(4), July :494-519